

수도권 문화콘텐츠기업 ‘광주행’ 러시

전일빌딩에 본사 등 설립
콘텐츠 거점도시로 도약

투자진흥지구 전략 결실
민선 8기 이후 기업 17곳

광주시가 수도권 문화콘텐츠기업 유치에 잇따라 성공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7개 콘텐츠기업이 광주에 등지를 틀었고, 올해에만 다섯 번째 유치 성과다.

광주시는 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시각특수효과(VFX) 전문기업 ㈜오아시스 스튜디오, 글로벌 예능 제작사 ㈜루이웍스 미디어와 투자진흥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업은 전일빌딩245 광주콘텐츠허브에 본사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총 90명의 지역 인재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청년을 우선 채용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해당 기업들에게 행정 지원은 물론 세제·입지 특전(인센티브), 문화콘텐츠 기반시설 등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3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오아시스튜디오, ㈜루이웍스미디어와 투자진흥지구 유치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유치는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활용한 콘텐츠기업 유치 전략의 성과로,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산업 기반 강화에 기여하며 광주가 콘텐츠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아시스튜디오는 2022년에 설립된 시각특수효과(VFX) 전문기업으로, 디즈니+ ‘커넥트’, 넷플릭스 ‘종의 집 Part 2’, JTBC ‘나쁜 엄마’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주목받은 VFX 콘텐츠를 제작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6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루이웍스미디어는 ‘피지컬: 100’,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등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끈 예능콘텐츠를 제작해온 기획·제작 전문기업으로, 본사를 광주로 이전하고 30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광주콘텐츠허브에 유치된 ㈜유로드는 70명의 지역 인재를 채용했다. 이번 협약을 포함하면 총 160명의 일

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광주시는 GCC사관학교 운영을 통해 실무형 콘텐츠 인재를 양성하고, 투자진흥지구의 혜택을 결합해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콘텐츠 인프라, 전문인력, 정책지원의 3박자를 모두 갖춘 도시”라며 “이번 유치 기업들이 광주의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주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시, 폭염특보 맞춤대책 추진
15개 분야 유형별 집중 보호

광주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특보에 대응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폭염에 취약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신체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4개 분야에 걸쳐 총 15개 유형의 폭염 민감대상자를 지정하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집중 보호에 나섰다.

신체적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기저질환자에게는 생활지원사를 통한 일일 건강 확인과 냉방용품이 지원되며,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영유아·임산부·고독사 위험자·군 복무자 등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실시간 안부 확인 시스템으로 관리한다.

농업인·외국인근로자·건설노동자·폐지수집자 등 직업적 민감대상자에게는 폭염 예방키트와 ‘안전쉼터 쿠폰’ 등을 제공하고, 드론을 활용한 예찰과 축산·공사현장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또 폐지수집 아르바이트를 위한 ‘자원재생활동단’도 8월 한 달간 운영해 대체 일자리와 폭염 보호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

전남 해수욕장 내일부터 속속 개장

치맥 페스티벌·드론 대회와 체험·음악회 등 다채

전남의 푸른 바다가 본격적인 여름 손님맞이에 나선다.

전남도는 오는 5일부터 여수 응천·모사금을 시작으로 도내 12개 시군 54개 해수욕장을 순차 개장한다고 밝혔다.

고온 백사장과 맑은 수질을 자랑하는 전남 해수욕장은 매년 수많은 피서객이 찾는 여름 명소다.

올해도 해양레저 체험과 음악회,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바다의 낭만을 더할 예정이다.

도는 총 27억 원을 투입해 샤워실·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감시탑과 안내관 등 안전시설을 보강했다. 수상오바이, 인명구조함 등 3718대의 장비와 함께 총 271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돼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했다.

해양레저 콘텐츠도 풍성하다. 여수 응천, 완도 신지명사십리, 고흥 남열해돋이 등 9곳에서는 가누·카약·서핑 등 액티비티 체험이 가능하며, 함평 돌머리와 영랑가마미에선 바지락·새우·장어를 직접 잡

아보는 갯벌 체험이 펼쳐진다.

특히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선 개장일인 12일 맨발걷기, 크로스핏 대회, 치맥 페스티벌이 열린다. 개장 기간 내내 해양레저 체험과 플라잉보트쇼, 해양치유 테라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이색 콘텐츠도 눈에 띈다.

고흥 남열해돋이 해수욕장에서는 26일부터 ‘드론섬머 비치 페스타’가 열려 드론축구·낙시 대회, 드론 배송 시연 등이 진행되고, 장흥 수문 해수욕장에선 밤바다와 함께하는 해변음악회와 북콘서트가 열린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도, 가축 폭염피해 예방 예비비 20억 긴급 투입

전남도가 여름철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20억 원을 긴급 편성, 축산농가에 고온스트레스완화제를 지원한다.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폭염이

시작됐고, 7~8월에는 높은 기온과 함께 강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전남도는 가축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분예산 17억 원의 사업비와 별도 예비비 20억 원을 추가 확보, 총 37

억 원 규모의 고온스트레스완화제를 확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폭염에 취약한 닭, 오리, 돼지 농가를 포함해 한우, 젓소, 꿀벌 등 축산농가다. 각 시군을 통해 7월 말까지 고온스트레스완화제를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에 김현성 대표
디지털경제 전문가…대통령실·정부 네트워크 탄탄
윤범모 전 관장,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에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가 내정됐다.

또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후보로는 윤범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 추천됐다.

광주시는 김현성 대표를 신임 문화경제부시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자격심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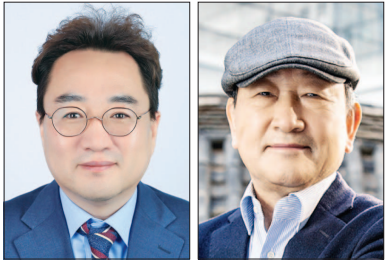
김 내정자는 서울시 디지털 보좌관,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디지털본부장을 역임한 민생경제와 디지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물로 통한다.

광주시는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최우선’ 기조에 발맞춘 것”이라며 “위기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경제의 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내정자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수립 및 정책방향 설계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김 내정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민주연구위원장으로 재직 당시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함께 호흡을 맞춘 등 김 총리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다.

또 민생경제연구소 운영위원장을



김현성 윤범모

역임하는 등 탄탄한 정책 네트워크도 갖춰 중앙정부와 대통령실,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 등 광주시장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적극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주시는 김 내정자에 대한 자격심사와 경력사유 조화 등을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사장인 강기정 시장은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후보로 윤범모 전 관장을 재단 이사회에 추천했다.

윤 후보자는 한국 근대미술의 거장들을 발굴·조명한 근대미술사학자이자 평론가·기획자이다. 198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에 당선돼 평단에 얼굴을 알렸으며, 이후 미술비평가로 40여년간 활동했다.

윤 후보자는 1995년 광주비엔날레 창립 당시 특별전 기획자로 광주비엔날레와 첫 인연을 맺기도 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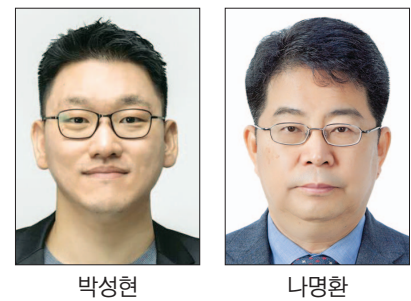
광주시, AI·빅데이터 총괄정책자문관 신설
초대 자문관에 박성현 대표·나명환 교수 위촉

광주시는 ‘AI 국가 시범도시 광주’ 조성을 본격화하기 위해 AI총괄정책자문관(CAIO)과 빅데이터총괄정책자문관(CDO)을 신설했다.

광주시는 초대 AI총괄정책자문관에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초대 빅데이터총괄정책자문관에 나명환 전남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를 각각 위촉했다.

박성현 자문관은 KAIST와 MIT에서 전자·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인텔·스페이스X 등에서 AI반도체 설계 경험을 쌓은 국내 대표 기술전문가로, AI반도체 유니콘 기업 ‘리벨리온’ 공동 창업자이자 대표다. 현재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광주의 AX실증밸리와 AI반도체 산업 확장, 기업지원 전략 구체화는 물론,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실질적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박성현 나명환

나명환 자문관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석·박사를 마친 통계학 박사로, 피츠버그대학교와 조선대학교를 거쳐 현재 전남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역 통계 및 빅데이터 분야에서 활발한 학술·자문 활동을 펼쳐왔으며, 전남대 통계연구소장, 한국통계학회 호남·제주지회장, 1.5°C포럼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공공데이터 기반 시민체감형 서비스 기획, 디지털 기반 의료빅데이터 등 실생활 밀착형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했다. 장승기 기자

전남·곡성 모듈러 주택단지 / 휴인 설계·시공

대한민국 탄소중립에 바탕 세력입니다

휴인주식회사
HUIN Co., Ltd

문의 및 상담 Tel. 061-271-5777 / 062-945-0036~7

공학목재(구조용 집성목재)

제조·공급하는 지역기업 입니다.

목조건축 상담 및 설계지원

건축구조재(CLT) 신기술 인증 보유 기업

내화구조 1시간, 2시간 인증

구조용 집성목재 생산·시공(KS인증 보유)

국내 KS 인증서 (구조용집성목재)

국내 신기술 인증서 (합판교 CLT)

내화구조 인증서 (기둥, 벽체, 바닥)

집성목재 생산 및 납품

화순 - 치유센터 목구조 골조

화순 - 치유센터 목구조 설계지원 및 시공